



## 국화꽃처럼 예쁜 섬 ‘국화도’

국화도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남서부 28km 지점에 있는 섬이다. 궁평항(화성시 서신면)에서 배를 타고 40분이 걸린다. 섬이 작아서 해안 둘레길과 능선 숲길을 모두 걸어도 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국화도는 전에는 꽃이 늦게 피고 진다고 해서 만화도라고 불렀으나, 나무로 취사와 난방을 하던 시절에 국화도의 나무를 다 베어내게 되자 그 자리에 야생 들국화가 많이 번성하게 되어 육지에서 바라보면 바다에 노란 들국화가 핀 듯한 형상이라고 하여 국화도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장고항이나 왜목마을에서 바라보면 국화도와 형제처럼 나란히 매박섬(토끼섬)이 보인다. 500m쯤 되는 국화도와 토끼섬 사이에는 썰물 때 갯바위와 모래밭이 드러나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 이 바닷길 주변에는 고둥을 비롯한 각종 조개류가 풍부하다.

국화도는 북쪽에 매박섬, 남쪽에 도지섬 등 부속 섬을 형제처럼 두고 있다. 무인도인 이들 섬은 만조 때는 떨어져 있다가 썰물 때면 바닷물이 빠져 걸어서 건널 수 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소박한 어촌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매박섬에는 바지락, 대수리, 고둥 등이 많다. 도지섬은 조약돌과 조개껍데기 등이 풀등을 이루고 있어 조개와 바지락잡이, 좌대 낚시, 건간망 체험을 할 수 있다.

국화도 선착장 마을에서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난다. 조개껍질과 모래가 적당히 어우러진 천혜의 해수욕장이 활처럼 펼쳐져 있다. 해수욕장은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모래와 작은 자갈이 섞여 있어 물이 매우 맑은 게 특징이다.

서쪽 해안은 경사가 심하고, 남서쪽에는 해식애와 파식대가 존재한다. 암석은 엇리 구조를 보이는 호상편마암, 반상변정질편마암, 석회규산염암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섬의 서쪽에는 마을 다음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소나무 군락이 뒤덮고 있다. 이런 이유로 멀리서 섬을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화도는 특히 여름 휴양지로 우수하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갯벌체험장이 있어 아이와 함께 고둥, 조개 등 다양한 해산물 잡이 체험이 가능하다. 국화리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gukhwa.seantour.com)에서 교통편과 숙소, 계절별 체험 정보를 볼 수 있다. ▼

